

## 교 회 소 식

### ◆ 광고

1. 오늘 2부예배후 각기관 월례회 모입니다.
2. 오늘 오후예배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 입니다.(연습 2시:사랑관)
3. 다음주일일은 한 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확정주간입니다.  
전도대상자가 초청주일에 참석여부를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생명 초청주일 전도지(물티슈)와 초청장이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한 생명 초청주일 전도시상(7월부터 전도자 누적 적용합니다)  
▶ 10명 이상 : 제주도 2박3일 여행상품권(2인)  
▶ 5~9명 : 2박3일 국내 펜션 여행상품권(2인) ▶ 1~4명 : 문화상품권
6. 이번 한주간 한 생명 초청 주일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 일시: 10월14일(월)~10월20일(주일) 오전 5시30분 ▶ 장소: 본당
7. 교사연합기도회가 10월 12일(토) 오후7시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캄보디아 단기의료선교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  
▶ 대상: 전교인 ▶ 일시: 2014년 1월 13일(월)~20일(월) 7박 8일 (단 10명 이하신청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최차규, 엄서운, 송명남
- 이번주 식사대접 : 소용섭(김다영) 집사 퇴원감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한 생명 초청주일을 통해 신일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4. 고3 수험생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소서 (강애란, 강애리, 강지원, 남정아, 안희성, 이신혜)

###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8여전도회	남 5, 6 목장	제6여전도회	금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 10월 행사

- 6일 / 신일비전헌신예배, 정기제직회
- 13일 / 성례주일, 각 기관 월례회, 정기가을노회(14~15일)
- 20일 / 제7 89 여전도회 헌신예배
- 27일 / 정기당회, 종교개혁주일, SFC 주일

◆ 10월 안내위원 1부 : 구남량, 박영숙A 2부 : 권유순, 정영주

◆ 10월 헌금위원 1부 : 구남량, 박영숙A  
2부 : 안재경, 이승호, 소재익, 박순국, 주정주, 곽복남, 이정자, 박순덕

## 새 가 족

번호	성 명	목자	인 도 자	주 소	전 화	소속기관
	문은식		성월용	중구 유천동 유등탑스빌 905호	010-8565-7282	제8여전도회
	서기원		안주모	계룡시 금암동 우림A 107-605	010-2870-4959	제3남전도회
	김진숙		안주모		010-2801-1263	제6여전도회
	서고은		안주모			청년말투스
	서은주		안주모			초등부

## 주 일 낮 예 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최 영 준 목사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 다같이

새15장(구55장)  
새27장(구334장)  
갈릴리 마음 그 숲속에서

기 도 ..... 1부/남동균 장로  
2부/양문주 장로

성경말씀 ..... 인도자

누가복음 14:15~25 (신 P120)

찬 양 .....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강권하여 데려오라

기 도 ..... 설교자

찬 송 .. 새518장(구252장) ... 다같이

헌 금 ..... 다같이

감사와 축복 .....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 담임목사

광 고 .....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김명권 장로  
2부 / 박권용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사  
설교 최 영 준 목사

예배선언 .....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 정홍재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요한복음 9:13~22(신 P161)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담대한 증거자

찬 송 .. 새502장(구259장) .. 다같이

축 도 ..... 설교자

광 고 ..... 인도자

✚ 다음주 기도/ 박근용 집사

## 수 요 기 도 회

오후 7:00 인도 최사무엘 목사  
설교

목 도 ..... 다같이

찬 송 ... 새380장(구424장) ..... 다같이

기 도 ..... 장지혜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레위기 22:1~16 (구 P180)

말씀선포 ..... 설교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

찬 양 ..... 남 5, 6 목장

축 도 ..... 설교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 7, 8 목장

✚ 다음주 기도 / 김미화A 집사

Since. 1978

No 41. 2013. 10. 13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종남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은퇴장로	김차술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욱 우호선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이명재
반 주 악	김진경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윤현덕 김성옥 안혜린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26-15(용전동주민센터 옆)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shinilchurch.org

## 초 대 합 니 다

###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생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새벽 6시	사 랑 관
	수 요 전 도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중 보 기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주 일 학 교	새 가족 성경공부	목장별로	가 정 에 서
	유 치 부	2부예배 후	사 무 실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유 초 등 부 오 후 예 배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말 투 스 청 년 회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진, 중국장춘/오성학, 국내선교부/김복경, 중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호, 베트남/전우영, 캄보디아/조재찬, 아르헨티나/윤춘식 이태호, 러시아/배성운, 미주/남후수, 미얀마/김인, 태국/정규호, 차야마이/인터넷 방송, 필리핀 추수신학교/오일환
- 2. 미자립교회:**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놀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이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뱀열교회/창원 군인교회
- 3. 학원선교:** 대전 총정지역 S.F.C.간사/이성은, 김예경, 박진우
- 4. 기관선교:** 극동방송국/대전, 용달생드롭민센터/서울, 북한 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 5. 문서선교:**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 항 기 로 운 예 목

### ✦ 십일조헌금

김건국(김성옥), 김경래(전선녀), 김대운, 김명화, 김선화, 김재근(한영실), 김춘복, 남희중(김명자), 노시래(구남영), 박경숙, 박상임, 박세훈, 박세원, 박영숙, 박진우(김혜정), 박해진, 소용섭(김다영), 소재익(김미희),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선), 오인숙, 유진숙, 유진화, 윤선옥(염순자), 이성은(청년회), 이옥영(김영자), 전민규, 정승환(정옥자), 허문숙, 함정혁

###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김건국(김성옥), 김경택(김나경),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명화, 김성영, 김영민(함현숙), 김재홍(한영자), 김종남, 김진온(김남주), 김춘복, 남희중(김명자), 박근웅(최운자), 박남수,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은정, 박진우(김혜정), 박해진, 설인성, 성형건(윤송희), 소용섭(김다영), 소재익(김미희),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선),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오인숙, 우성환(정혜민), 원성민(최차규), 원웅국(김복금), 윤정숙(김신혜), 이성은(청년회), 정기훈(최연옥), 정옥근(이경미),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한영실, 함문수(박정자)

### ✦ 선교헌금

강현선(임희자), 김재근(한영실), 김춘복, 남희중(김명자), 박은정, 소용섭(김다영), 소재익(김미희), 심남희, 안주모(조양선), 우성환(정혜민), 윤호식(주정숙), 이상자, 이옥영(김영자), 이은화, 임웅천(정분회), 전민규, 정옥근(이경미)

### ✦ 장학헌금

남동균(윤현덕), 소재익(김미희), 정옥근(이경미)

### ✦ 일천번제헌금

남정아, 이경미, 김건국(성옥, 도희),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안재경, 정은숙(소연, 진형, 진성), 안소디자민, 안영원(영민, 혜린), 양문주(권유순), 김영숙, 이영일(홍은미), 이재희(라희), 이승민(엄서원), 무명1

### ✦ 비전헌금

강일창(고숙자), 강철원(이지영), 강춘자, 강현선(임희자),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시영(이지형), 김영민(함현숙), 김종남, 김춘복, 남동균(윤현덕), 남희중(김명자), 박근웅(곽복남), 박근웅(최운자),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숙, 박영숙, 박유연, 박은정, 소용섭(김다영), 소재익(김미희), 심남희,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선), 양문주(권유순), 엄기준(성영숙), 오승엽(김영희), 오인숙, 우성환(정혜민), 우호선(김순자), 윤정숙(김신혜), 이성은(박선숙), 이상자, 이수영(권유순), 이승호(성월순), 이옥영(김영자), 이은화, 이종진(박순덕), 임웅천(정분회), 정기훈(최연옥), 정길원(정재선), 정옥근(이경미), 조성철(이혜린),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허문숙, 무명1

## 목 장 현 황

2013. 9. 30~10. 6

초원	목 장	모인국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국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중남	교 회	3	16,000		교 회	여3초원	5 김재옥	교 회	1	5,000	20	교 회
	2 강일창	교 회	2	13,000	5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1	,000	10	교 회
남2초원	3 박석문	교 회	1	5,000	7	교 회	여4초원	7 곽복남	교 회	4	14,000	13	교 회
	4 김명권	교 회	3	15,000	20	교 회		8 주정주	교 회	2	7,000	7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1	5,000	26	교 회	여5초원	9 구남량	교 회	3	9,000	50	교 회
	6 원웅국	교 회	1	5,000	51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1	5,000	20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3	12,000	10	교 회	여6초원	11 함현숙	교 회	1	5,000	30	교 회
	8 박순국	교 회	2	10,000	13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3	10,000	80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1	2,000	10	교 회	여7초원	13 정옥자	교 회	3	5,000	60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3	3,000	5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3	18,000	50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3	13,000	90	교 회	여8초원	15 신윤경	교 회	4	10,000	18	교 회
	2 김명숙	교 회	4	14,000	115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40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3	10,000		교 회	여9초원	17 장지혜	교 회	4	8,000	19	교 회
	4 이성순	교 회	1	2,000	50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2	4,000	20	교 회

## 금주의 말씀

## 강권하여 데려오라

누가복음14:15~25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응해야 할 하나의 초대があります. 이 초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는 소위 "하나님의 초대"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 요 "생명의 잔치" 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잔치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초대된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잔치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같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까?

### 1. 하나님께 배부진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배부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쉬게 해주리라.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해 주겠고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해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주홍보다 진홍보다 더 붉은 죄를 짊어진 자들도 오라...죄를 사해 주겠고 도덕적인 자유를 주시겠다는 왕의 선포입니다. 절망의 무거운 짐 진 자도 오라...내가 치료해 주리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떠는 자는 오라. 내가 평안을 주리라고 초청 하십니다. 여기 초청 내용을 보십시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손님들 기다리는 잔치 집과 같은 곳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즐길 것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워진 교회는 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받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되었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갈 한 자에게 생수를, 슬픈 자에게 기쁨을, 절망한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의 실과 피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위로와 도우시는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된 우리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총의 부름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절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 2. 많은 사람이 초청을 변명하며 사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초청 받은 사람들은 모두 초청을 사양하며 변명하기 시작 했습니다. "다 일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1) 발을 산 사람:** 18절에 보면 "다 일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발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이해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발을 사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발과 같은 부동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재산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재산과 사업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사업에 미친 사람,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업이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물질에 붙잡혀 살아가는 안 됩니다.  
**2) 소 다섯 거리를 산 사람:**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거리를 샀으며 시험하려 하니 청컨대 나를 이해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소 다섯 거리를 산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자가용을 다섯 대나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험하려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총계 말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여 바쁘고 시간이 없어 예수 믿을 수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다른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이나 경험과 나이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이어야 하고 바빠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안 됩니다.  
**3) 장가를 든 사람:**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런 사람은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쾌락을 좇아 사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가정의 행복은 오히려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37절 말씀에 "아버나 아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가정이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가운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3. 초청을 거절한 자는 큰 불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은 전도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달려붙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때를 써서라도 억지를 부려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망신을 당하더라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께서 잔치 집에 손님 채우길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본문에 나옵니다. "강권하여" 하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구원하라는 겁니다. 술래영아에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집에 데려오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엔 시간이 무시되어집니다. 장소가 무시되어집니다. 방법이 무시되어집니다. 대상이 무시되어집니다. 무조건 데려다 천국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 공세를 퍼서라도 데려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데려오고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당시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로 초청하였으나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사람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큰 잔치에 초청을 하였건만 자들은 다 같이 사양했습니다. 초대에 불응한 것입니다. 초청에 거절은 성의에 대한 거절이요, 주님의 정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받았습니다. 어린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치 못하는 자는 최대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신약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빈자리! 내 집을 채우려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 비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잔치 날 명절 때 가족 중 자리에 있어야 할 식구가 빠져 비어 있으면 얼마나 생각났습니까? 주일 날 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없어 비어 있을 때 목회자의 심정도 아픈데 주님은? 자기의 자리를 비우지 맙시다. 주님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셨습니다. "길과 산을타가서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잔치를 배부진 주님의 뜻이요 심정이요 소원이란 일입니다.